



소련을 승리로 이끈 전장의 여성들

옥사나 두드니크

부산 주재 러시아 총영사

한국이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은 러시아에도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소련이 히틀러의 독일을 상대로 한 대조국전쟁(1941~45)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1939~45)의 종식을 목도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역사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참혹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 참전한 국가만 해도 62개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넘는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수십억 명의 운명과 수십 년의 세계 정치 지도를 결정지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 중에 소련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치열한 전장을 누비며 조국의 승리를 위해 영웅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소련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군으로 전장에 나간 이들의 숫자는 3,450만 명에 이른다. 이중 약 50만 명이 여성이었다. 그중 대부분(약 30만 명)은 의사와 간호사였고 수만 명은 통신, 방공, 비행장 지원 등의 부대에서 일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에 여성이 참전하는 것은 드물지 않았다. 전 세계의 많은 여성이 의료와 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쟁에 이바지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군 역시 여성들을 되도록 전선에 배치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 남편, 형제들과 어깨를 맞대고 직접

전장으로 나섰다. 소련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해군과 공군에서 복무하며 저격수, 전차병, 경찰병이 되었고, 심지어 적군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에서 대규모 유격대로 참전하기도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조야 코스모데만스카야 (출처: 위키피디아)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조야 코스모데만스카야



(1923~41)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다. 그녀는 전쟁 초기인 1941년에 역사에 남을 큰 공을 세웠다. 대학에 입학해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던 조용한 소녀는 모스크바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 서부전선 사령부 특수정찰대에서 정찰·공격을 수행했다. 하지만 조야는 페트리세보 마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독일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극심한 고문에도 그녀는 굽히지 않았고, 결국 1941년 11월 29일 소련군의 반격 개시를 며칠 앞두고 처형됐다. 그녀의 짧지만, 영웅적인 삶은 독일 점령군과 싸우는 소련 국민이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후 1942년 2월 16일 조야 코스모데만스카야는 대조국전쟁 시기 소련 최고의 명예인 ‘소련 영웅’ 칭호를 받은 첫 여성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됐다.

아드리아나 수녀(소명: 나탈리아 말리세바, 1921~12)의 삶도 놀랍다. 말리세바는 대조국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전선으로 떠나 볼로콜람스크 전선의 정찰대에서 복무했고 이후 K.K.로코슈스키가 이끄는 제16군 정찰대에 배치됐다. 그녀는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조국전쟁 훈장, 적성 훈장, 전투공로 포장, 모스크바 방어전 포장, 스탈린그라드 방어전 포장을 받았고, 2000년 수도원에 들어가 아드리아나라는 이름으로 수녀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조야 코스모데만스카야 외에도 전쟁 기간에 여성 유격대와원과 지하 조직원 27명이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중에는 당시 수만 명의 소련 민간인 학살 주범인 악명 높은 벨라루스 가올라이터(나치 점령 지역의 행정 책임자) 빌헬름 쿠베를 제거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된 엘레나 마자니크(1914~96), 나데즈다 트로얀(1921~2011), 마리야 오시포바(1908~99)가 포함되어 있다. 나데즈다 트로얀은 파시스트 빌헬름 쿠베의 집에 시한폭탄을 숨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 침실 침대 밑에 몰래 설치했다. 1943년 9월 22일 자정 직후 폭탄이 터지며 빌헬름 쿠베는 사망했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는 지하 조직원들의 철저한 계산에 따른 결과였다.

소련에서 최고 상훈을 받은 여성 중 3분의 1 이상은 비행기 조종사였다. 1941년 10월 8일 소련 국방 인민위원회(오늘날의 국방부)는 여성 항공부대 3곳의 창설을 명령했다. 특히

타만의 제46야간폭격비행연대 소속 여성 조종사들은 전쟁 기간 중 2만 3천 번 이상 출격해 작전을 수행했다. 적군은 이들을 ‘밤의 마녀들’이라고 불렀다.

전쟁 중 가장 큰 공을 세운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스탈린그라드의 하얀 백합’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디야 리트박(1921~43)였다. 그녀는 약 200회의 전투 출격을 수행했고, 독일군 전투기를 단독으로 11대와 협공으로 3대 격추했다. 이와 함께 적군의 정찰용 비행기구를 격추하기도 했다. 그녀는 1943년 8월 1일 미우스강 전선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했고, 사후인 1990년 5월 5일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리디야 비트박 (출처: 위키피디아)

여성들은 기갑부대에서도 전차 조종수, 무전수 겸 사수, 전차 및 전차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전장의 여자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T-34 전차를 타고 싸운 마리야 옥타브리스카야(1902~44)도 조종수였다. 1941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즉시 군 당국에 자신을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당시 소련에서는 조국 수호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운동이 진행 중이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모아놓은 돈 전부를 새 전차 제작에 기부했고, 1943년 10월부터는 자신의 전차를 직접 몰고 전투에 참여한다. 1944년 1월 그녀는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3월 병원에서 사망한다. 그녀 역시 사후인 1944년 8월 2일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해군에도 2만 명 이상의 여성이 있었다. 예카테리나 미하일로바(결혼 후에는 도미나, 1925~2019) 상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15세였던 예카테리나는 18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자원입대해 전선으로 떠났고, 1941년 9월 그자츠크(가가린 고향)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후송됐다. 이후 그녀는 1942년부터 ‘붉은 모스크바’라는 이름의 병원선(病院船)에서 복무하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부상병들을 불가강 반대편으로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년 동안 병원선에서 복무한 뒤 예카테리나는 다시 전투부대로 향했고 마침내 제369독립해군보병대대에 배속됐다. 그녀는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해방 작전에 위생병으로 참전하면서 세 차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녀 역시 1990년 5월 5일에야 ‘소련 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저격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1916~74)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제2차파예프소총사단 소속으로 오데사와 세바스토폴 방어전에서 싸우면서 단 1년 만에 309명의 독일군 병사와 장교를 사살했다. 심지어 그중 36명은 적군의 저격수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보내졌고, 1942년 9월에는 미국으로 파견되어 미국인들에게 소련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서 조속히 제2전선을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카고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녀가 행한 연설은 청중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사분들! 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저는 전선에서 이미 309명의 파시스트 군인과 장교를 사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제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소련 영웅’(1943년 10월 25일 그녀는

이 칭호를 받았다)은 저격수 양성에 힘썼으며 전쟁 승리 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해군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1956년 연안방위대 소속 소령으로 군 생활을 마쳤다.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출처: 위키피디아)

러시아 여성들의 위업은 나치가 점령한 여러 유럽의 나라에서도 이어졌다. 프랑스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의 역사에는 베라 오블렌스카야(1911~44) 공작부인과 마리아 수녀(속명: 엘리자베타 유리예브나 스크초바, 1891~1945)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마리아 수녀는 1945년 3월 31일 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둔 한 젊은 여성의 수인번호가 적힌 옷을 대신 입고 스스로 가스실로 들어가 희생됐다. 소련 붉은군대가 수용소를 해방하기 겨우 일주일 전이었다. 그녀는 1985년 5월 7일 2급 조국전쟁 훈장을 수훈했다. ‘비키’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공작부인 베라 오블렌스카야는 지하 조직의 연락책들과 접촉하며, 지도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보고를 수집했으며 수많은 비밀 서신을 교환했다. 1943년 12월 17일 그녀는



독일군에게 체포됐다.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한 그녀를 두고 독일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공작부인”이라고 조롱했다. 1944년 8월 4일 베라 오블렌스카야는 사면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플리첸제 감옥에서 처형당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러시아인이지만, 프랑스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나는 내 조국도, 나를 받아준 이 나라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후인 1965년 11월 18일 그녀에게 1급 조국전쟁 훈장이 수여됐다.

이렇게 90명의 여성이 남다른 용맹함을 인정받아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9명은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았다. 약 2,000명의 여성이 3급 ‘영광 훈장’을 수훈했고, 그중 4명은 전 등급의 모든 ‘영광 훈장’을 받았다.

* 이 글과 총영사관 전시회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러시아 군사역사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사진 전시회 ‘위대한 승리의 여성들’ (출처: 저자 제공)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대조국전쟁 당시 활약했던 여성들이 거둔 불멸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위대한 승리의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 소개된 모든 자료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설명이 곁들여졌다. 총영사관 방문객은 누구나 이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모두를 전시회에 초대한다. 

